

출장결과보고

2018. 5.

# 일본 국공유림 활용 마을 사례 및 관련 정책 조사 결과보고서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정호근 연구위원

정은미 연구위원

## 1. 출장 개요

1. 출장건명: 일본 국공유림 활용 마을 사례 및 관련 정책 조사

2. 출장 목적

- 산촌은 도시민의 귀산촌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추세대로라면 대다수 산촌이 축소 내지는 공동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함.
- 산촌지역 문제해결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며 산촌이 보유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함.
  - 그동안 지역 임업인의 사유림 경영을 통한 산림산업화 노력은 정부 지원사업과 함께 다양하게 이루어졌으나 작은 산림규모, 부채산주 등의 문제로 그 성과는 뚜렷하지 못함.
- 한편 국유림은 그동안 보존, 관리만 강조되며 산림산업화, 산업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은 적었으나 최근 들어 학계, 정부차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이용도 제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지역주민이 국유림관리소와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국유림 관리에 참여하며 국유림 임산물을 채취하는 ‘국유임산물 양여제도’에 포함된 산림 면적은 전체 국유림의 5% 미만임.
  - 임대료를 지불하고 국유림을 임차하여 임산물 생산 등에 이용하는 ‘국유림 대부사업’ 산림면적(49,629ha)은 전체 국유림의 3% 미만이고, 이중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 있는 사업 면적(2,481ha)은 국유림 대부면적의 0.5% 수준임.
  - 외국에서는 국·공유림이 다양한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지역산업,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산촌진흥법이 제정되어 낙후된 산촌지역 발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의 산촌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와 국공유림 활용 모델 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적용가능한 모델 발굴 및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2. 출장자

-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정호근
- 농림산업정책연구본부 연구위원 정은미

4. 출장 지역: 일본 나가노현, 동경도

5. 출장 기간: 2018년 5월 27일 ~ 5월 31일 (4박 5일)

## II. 주요 일정

일 자	방문 기관 / 장소	비고
5월 27일(일)	이동 (김포 → 하네다 공항 → 나가노 현) • 나가노 현 飯山市 森の家(이이야마시 모리노이에)방문 - 인터뷰 : 大西宏志(오니시 아츠시, 지배인) 金澤玲子(카나자와 레이코, 사무국)	출국 이동
5월 28일(월)	• 飯山市 森の家 산림테라피 체험 • 일반사단법인 信州いいやま観光局 및 道の駅 千曲川 (미찌노에끼 치쿠마가와) 방문 • 임야청 중부산림관리국 방문 - 인터뷰 : 총무기획부 기획조정과 井口 智 산림정비부 기술보급과 기획관 大野田 学 계획보전부 유역관리지도관 井上 裕	長野県
5월 29일(화)	• 信濃町役場(시나노마치) 산업관광과 - 인터뷰 : 清水悠介(시미즈 유스케) 치유의숲 담당자 川鍋幸祐(카와나베 고우스케) • 木島平村役場(키시마타이라무라) 산업과 상공관광과 - 인터뷰 : 宮島絢冬 ( 미야지마켄토) 仲山義敬 ( 나카지마 요시타카)	長野県  이동
5월 30일(수)	• 奥多摩町 일반재단법인 오쿠타마마치 지역진흥재단 - 인터뷰 : 徳王龍介(토쿠오 류스케) 사무국장 岩崎恵子(이와사키 케이코) 종합여행업관리자	東京都
5월 31일(목)	• 하네다 공항 → 김포	귀국

### III. 출장 결과

#### 1. 행정

##### 1.1. 임야청 중부산림관리국

- 방문 일자: 2018년 5월 28일(월)
- 주요 면담자
  - 총무기획부 기획조정과 井口 智
  - 산림정비부 기술보급과 기획관 大野田 学
  - 계획보전부 유역관리지도관 井上 裕
- 전화번호: +81-050-3460-6506
- 주소: 長野県長野市大字栗田715-52
- ※ website: <http://www.rinya.maff.go.jp/chubu/>

- 중부산림관리국의 관할 범위
  - 4개 지역(나가노현, 토야마현, 기후현, 아이치현) 국토면적 336만 ha 중 국유림면적 65만 ha(19%)
  - 長野県 면적 136만 ha 중 국유림면적 37만 ha(27%)
  - 富山県 면적 42만 ha 중 국유림면적 10만 ha(24%)
  - 岐阜県 면적 106만 ha 중 국유림면적 17만 ha(16%)
  - 愛知県 면적 52만 ha 중 국유림면적 1만 ha(2%)

<중부산림관리국의 관할 구역과 국유림 분포>



○ 관할지역의 산림 면적과 산림국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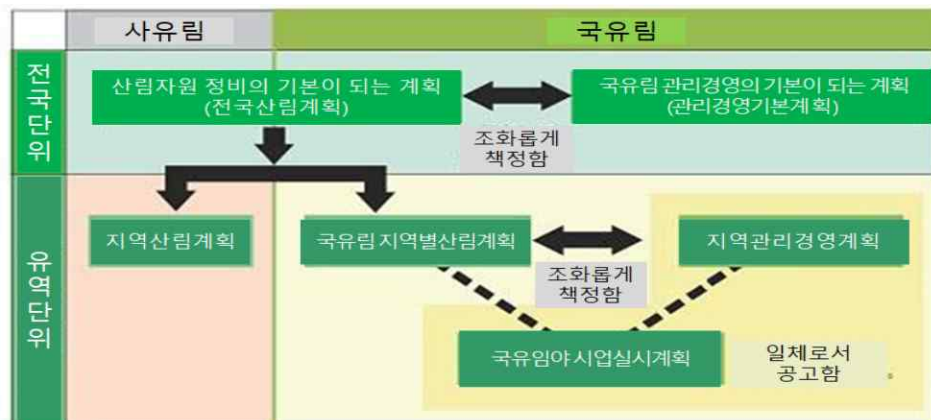
- 국유림면적 654,831ha(2018년 4월 1일 현재) 중 천연림 56%, 기타 18%, 인공림 26%(카라마츠 11%, 편백 10%, 스기 3%, 기타 2%)
- 약 절반은 활엽수나 침엽수인 천연림, 약 30%는 편백, 소나무 등 인공림, 20%는 고산대 암석지임.
- 인공림은 9~12령급<sup>1)</sup>(41~60년)이 가장 많고, 건전하고 활력있는 삼림 육성이나 이산화탄소 흡수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간벌 등 삼림정비를 추진함.

○ 중부산림관리국의 업무 내용

(1) 공익적 기능

- 국유림의 삼림 구분 5가지 유형
  - 1) 산지재해방지 : 토사유출이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 2) 자연유지 : 후생적인 산림생태계가 만드는 자연환경 유지, 동식물 보호 등
  - 3) 산림공간이용 :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교양문화, 휴양 등의 활동의 장으로 경관 제공 또는 도시 주변의 풍치 유지
  - 4) 쾌적환경형성 : 소음 저감, 대기 정화, 그늘 제공 등 기상 완화 등 인간 거주 환경을 양호한 상태로 보전
  - 5) 수원함양 : 공익적 기능을 배려하며 산림자원의 유효활용도 고려한 삼림
- 중부산림관리국 관내는 산지재해방지형이 약 40%를 차지함. 국민에게 중요한 산림 관리를 위해, 지역별로 산림정비에 관한 기본계획 '국유림의 지역별 산림계획(계획기간 10년)과 관리경영에 관한 기본계획 '지역관리경영계획(계획기간 5년)을 정해두고 계획적으로 관리경영함.

<국유림 계획 체계>



1) 년급은 나무나이를 5년 단위로 구분한 것. 1년급은 1~5년생을 말함.

- 다양한 산림으로 유도 : 다양한 생육단계나 수종으로 구성되도록 산림사업함.
  - 안전·안심에 공헌 : 재해발생시 신속한 대응, 대규모 황폐산지 복구, 국민 생활을 지키는 보안림 조성
  - 우수한 자연 환경 유지·보전 : 보호림, 녹색 회랑(코리도), 온대성 침엽수림 지키기
- (2) 임업 성장산업화에 공헌
- 철저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 : 벌채에서 조림까지 한꺼번에 일관작업 시스템, 생산성 향상 실현 프로그램 조직(작업시스템 개선 방식)
  - 목재의 안정 공급과 브랜드 화 : 수요자와 사전에 안정공급 협정을 체결하여 판매, 고품급 인공림 목재의 브랜드화, 특수한 용도의 임산물 안정 공급
  - 일본 사슴 피해대책
  - 사유림과 연계한 사업 : 사유림과 산림정비추진협정을 체결하여, 국유림과 사유지를 접속하는 효율적인 도로망 정비, 목재의 협조출하, 사유림에 기술 보급
- (3) 국민의 산림으로서 관리경영
- 양방향 정보 수발신
  - 산림환경교육 추진
  - 국민이 참가하는 숲 만들기
  - 레크리에이션 숲

< 중부산림관리국 방문 면담 >



○ 인터뷰 시사점

- 임야청이 담당하는 국유림 관리 업무는 방제, 치수, 관리사업에 집중됨.
- 산림 테라피, 목질 바이오매스, 시민이 참여하는 숲 가꾸기 등은 임야청 지방산림관리국이 지자체(행정)와 계약을 통해 이용을 허가하면, 지자체(행정) 주도로 사업을 전개함.
- 지역민이 국유림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지자체(행정)과 협의하고 행정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시행함.
- 따라서 지역민의 국공유림을 활용한 수익사업은 행정(현 및 시정촌 단위)에서 해당 사업명의 형태로 수행됨.

1.2. 나가노현 임무부(林務部)

○ 2018년 2월 나가노 현 산림정책과의 현 의회 정례회 설명 요지에서 발췌

([http://www.pref.nagano.lg.jp/rinsei/kensei/soshiki/soshiki/kencho/shinrin/documents/30rimmu\\_gian.pdf](http://www.pref.nagano.lg.jp/rinsei/kensei/soshiki/soshiki/kencho/shinrin/documents/30rimmu_gian.pdf))

- 최근 산림·임업을 둘러싼 정세 : 임업경영의 의지가 낮은 사유림을 능력있는 경영자와 연계하여 임업경영의 집적·집약화 시도, 경제적으로 효율성 낮은 산림은 시정촌이 산림정비에 적극 역할하도록 함. 산림환경세, 산림환경양여세 도입 등

○ 아름답고 풍부한 나무와 숲의 문화 재생·창조 프로젝트

- 2030년을 목표로 실행하는 성장형 프로젝트
- 지역자원으로 자립하는 사회 구축을 위해 산림세를 활용한 자립적·지속적인 산림관리 : 지역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숲 이용이나 산림을 활용한 교육활동 등 생활밀착형 임야의 정비나 이활용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협의회 조직을 만들거나 활동계획 작성에 관한 지원, 산림관리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지원, 생활밀착형 임야를 관리·이용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활동 코디네이터 하는 리더나 지역의 생활밀착형 임야를 유지관리하는 인재 육성
- 나무와 숲과 사람을 연결하는 재생·창조는 산림세를 활용하여, 산림 테라피 기지 시설정비 지원을 통해, 이용자 증가와 관련 관광, 건강 산업과의 연계 강화, 지역자원 활용해 가는 지역의 기운양성에 공헌 : 방치되어 이용이 곤란한 학교림의 활용 지원, 주위를 산림으로 둘러싼 나가노현에서 아동이 산림만들기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다양한 주체와 연계 조직으로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을 유도하여 지역과 교류 촉진, 자연환

경이나 개성있는 역사·전통문화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지역을 만들기 위해 산림세를 활용하여 관광지에 매력을 살리는 뷰 포인트 산림정비 지원

- '신슈(나가노의 옛 이름) 산의 날(山の日)'을 계기로 산에 관련된 조직으로서는 '신슈 산의 날' 페스티벌 2018(가칭)을 개최...관광부와 연계
- 인재육성의 거점화에 대한 사업 : 나가노현 임업대학교(나가노 현 유일의 산림·임업전문교육기관)의 발본적인 개혁을 위해 교육 방향 검토

## 2. 산림테라피 사례

- 일본의 산림테라피 기지 인정 현황
  - 2018년 3월 현재 63개소 인정
  -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산림테라피 소사이어티(<http://www.fo-society.jp>)
  - 그 중 나가노 현은 산림테라피 10개소가 활동함.

일본 전국 산림테라피 숲 분포

나가노 현 산림테라피 기지 인정 지역



- 임업 쇠퇴와 여가, 문화 활용으로 국유림 이용 증가
  - 채산성이 낮은 임업은 점차 관리되지 않는 숲이 증가하는 반면, 70년대 이후 레크리에이션으로 국유림을 이용하는 수요는 증가함.
- 1970년대부터 '산림욕' 유행, 2000년 이후 과학적으로 검증된 '산림테라피'가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됨.

○ 조사지역 임야면적

단위: ha

시정촌명	지역총면적 (a)	산림면적			비율 (b/a)
		국유림	민유림(공유림, 사유림)	합계(b)	
이이야마시(飯山市)	20,243	2,428	9,652	12,080	59.7
시나노쥬(信濃町)	14,930	5,557	5,816	10,823	72.5
카마야마리무라(木島村)	9,932	5,575	2,553	8,128	81.8
나가노현 합계	1,356,160	373,770	684,780	1,058,571	78.1

2.1. 飯山市 森の家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문 일자: 2018년 5월 27일(일)</li> <li>○ 주요 면담자 : 信州いいやま観光局 사무국장 大西宏志(오니시 아츠시)</li> <li>○ 전화번호: +81-269-69-2888</li> <li>○ 주소: 長野県飯山市照岡1571-15なべくら高原 森の家</li> <li>※ website: <a href="http://www.nabekura.net">www.nabekura.net</a></li> </u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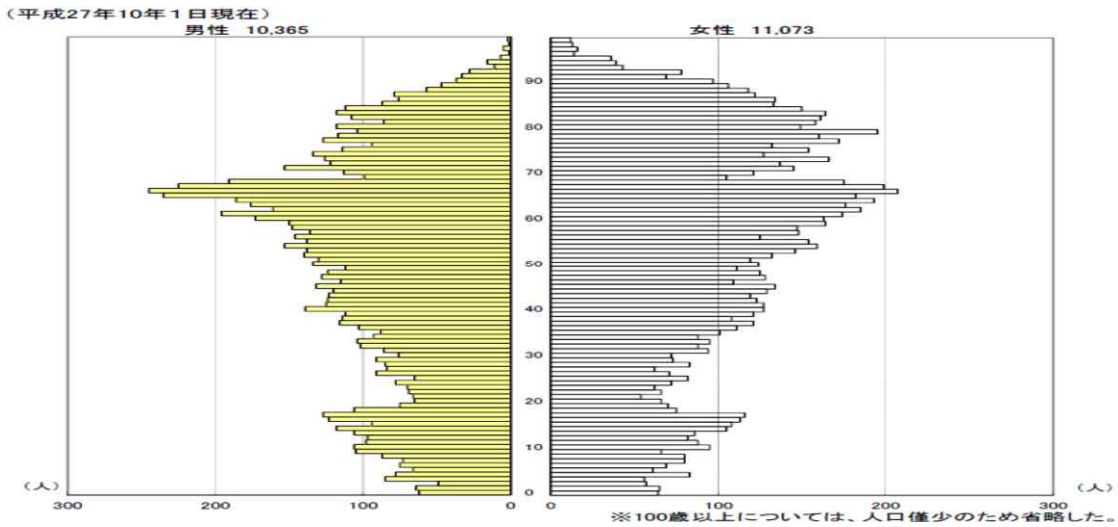
- 제3섹터 주도 : 일반사단법인 信州いいやま観光局(飯山市)
  - 공익적 기능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이이야마시가 거점 시설 3곳(森の家, 山の家, 神の家)을 설치함.
  - 모리노이에(森の家)는 농촌 관광의 거점으로 이이야마 시가 설치하고, 재단법인 이이야마시 진흥공사가 시에서 운영위탁받아 1997년 개업한 시설.
  - 2010년 이이야마 진흥공사와 일반사단법인 이이야마시 관광협회가 통합하여, 2010년 4월 일반사단법인 신슈이이야마관광국으로 명칭 변경함.
  - 현재 관광국의 사업과로서 사업을 전개함.
- 지역 개요
  - 지역에 대형 스키장이 6곳으로 1998년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업이 크게 발달함.
  - 그러나 2000년 이후 버블경제가 쇠퇴하며 지역 관광업도 크게 위협받게 되었고, 지역민들의 우려, 염려로 관광업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크게 확산됨.
  - 관광 소비패턴 변화에 착목하여 새로운 수요 발굴과 안락한 숙식을 제공할 목적으로 행정이 주도했지만 민관 거버넌스가 안착하며 제3섹터의 형

태로 운영이 가능하게 됨.

- 인구와 세대수 추이

	세대수	합계	남자	여자	1세대당(인)
1970년	7,664	32,159	15,476	16,683	4.2
1980년	7,648	30,073	14,539	15,534	3.9
1990년	7,547	28,114	13,509	14,605	3.8
2000년	7,829	26,420	12,680	13,740	3.4
2010년	7,694	23,545	11,324	12,221	3.1
2015년	7,423	21,438	10,365	11,073	2.9

-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 추이(2015년 10월 현재)



- 농림업: 경영 경지규모별 농가수 단위: 호

	총수	0.3ha 미만	0.3-0.5	0.5-1.0	1.0-1.5	1.5-2.0	2.0-3.0	3.0ha 이상
1995	2,722	86	668	1,119	526	181	95	47
2000	2,388	85	553	1,047	428	150	75	50
2005	1,937	58	440	854	340	130	63	52
2010	1,550	45	338	677	264	100	57	69
2015	1,222	56	260	504	184	82	52	84

○ 산림테라피 특징

- 2006년 산림테라피 인증받고, 2007년 낙엽 광엽수림, 대표 수종은 너도밤 나무, 삼나무 등이 언론에 소개됨.
- 테라피 기지는 크게 ‘어머니의 숲’(2개 지역)과 ‘신의 숲’(2개 지역)으로 나누어지고, 산림테라피 거점시설이 3곳 있음(나베쿠라 고원 숲의 집, 마다라오 고원 산의 집, 文化北竜館), 인증 가이드 30명(대부분 인근 도시지역)

- 로드는 총 30개(그 중 배리어프리 로드 1개)
- 숲 안내인 동행 산림요가, 산림산책, 노르딕 워킹, 숲 체험, 호수의 카누 체험, 농작업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적십자병원 의사가 숲 테라피 참여자 검진 후 변화를 과학적으로 검증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함. 테라피 검진, ‘숲의 안내인’ 동행, 온천 입욕, 건강식 식사 제공 등
- 농산물 직판장 道の駅 千曲川(미찌노에끼 치쿠마가와)가 근접하고 일반사단법인이 총괄, 숲 테라피 협의회(행정, 민간, 단체 등) 구성
- 2007년 ‘고향납세<sup>2)</sup>’ 제도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참여하는 도시민이 증가하여 현재 연간 숙박인은 약 4천명에 이름.
- 인정숙소: 손님접대, 요리, 구급법 등의 강습 수강 후 레포트 제출-인정
- 가이드: 산림테라피, 가이드 기초, 요가, 노르딕 워크, 구급법 등 강습회 수강 후 레포트 제출 - 인정
- 참가자는 2007년 199명, 2017년 약 4천명

#### ○ 일반사단법인 이이야마관광국

- 이 지역은 영화「阿弥陀堂だより」의 촬영지. 영화에서 나오는 치유효과를 보여주는 풍경이 지역의 보물(자원)인 것이 재인식되면서 지역에서 산림을 활용한 건강증진형 관광에 관심이 커짐
- 법인은 온천, 산림테라피, 직판장 2개소(花の駅・千曲川) 등 수익 사업 운영과 등산로 정비, 홍보물 발행 및 홈페이지 운영, 등산 및 산림테라피 가이드 육성 등의 업무를 수행함.
- 연간 총 사업비 6억5천만엔 중 시에서 8천만엔(12.3%) 보조하며 87.7%는 경제적으로 자립함. 직원 100명 중 70% 지역민이지만 30%는 외부인임.
- 관련조직: 飯山市役所經濟部観光課

2) 도시 생활자가 주민세의 10% 정도를 고향 지자체에 전하며 2천엔을 넘는 금액이 개인주민세에서 공제되는 제도임. 2004년 결정된 3위일체 개혁은 1)국가에서 지방으로 보조금 삭감, 2) 지방교부세 교부금 삭감, 3)국가에서 지방으로 세원 이양을 내용으로 하며 지방재정을 악화시켰다. 이에 2007년 주민세의 일부를 현재 거주지 이외의 지자체에 납부하는 제도나 지자체에 기부금을 주민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보고되었고, 2008년도 세제 개정으로 실현되었다.

< 모리노이에 면담과 지역특산품, 숲산책 체험 >



2.2. 信濃町 산업관광과 상공관광 치유의숲계

- 방문 일자: 2018년 5월 29일(화)
- 주요 면담자 : 清水悠介(시미즈 유스케), 川鍋幸祐(카와나베 고우스케)
- 전화번호: +81-26-255-3114
- 주소: 長野県信濃町柏原428-2 信濃町役場
- ※ website: <http://iyashinomori.main.jp/>

○ 지역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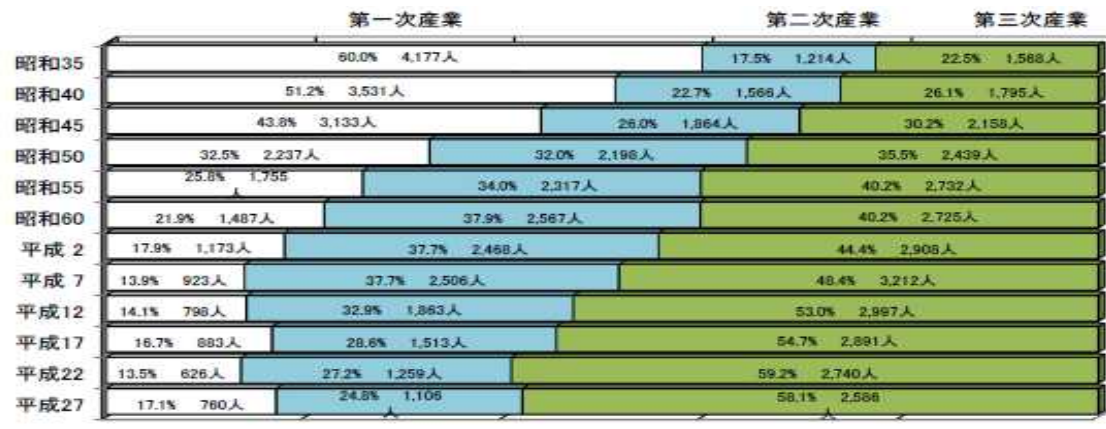
- 나가노현 국립공원 속 풍광이 아름다운 고원 분지에 위치함.
- 면적 149.3km<sup>2</sup>, 인구 8500명, 산림면적 약 73%인 산촌지역으로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외지인의 팬션 및 숙박업소가 크게 증가함.
- 인구와 세대수 추이

	세대수	합계	남자	여자	1세대당(인)
1970년	2,897	12,301	5,962	6,339	4.2
1980년	3,009	11,857	5,772	6,085	4.0
1990년	3,126	11,552	5,569	5,983	3.7
2000년	3,224	10,391	4,987	5,404	3.2
2010년	3,247	9,238	4,763	5,164	3.0
2015년	3,152	8,469	4,113	4,356	2.6

- 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 추이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총인구(인)
1990년	17.5	63.6	18.9	11,552
2000년	12.3	60.1	27.5	10,391
2010년	10.8	55.8	33.4	9,238
2015년	9.7	51.3	38.9	8,469
나가노현(2015년)	13.0	57.0	30.1	2,098,804
전국(2015년)	12.6	60.7	23.0	127,094,745

- 산업별 취업인구 추이(1960-2015년)



- 농림업: 경영 경지규모별 농가수

단위: 호

	총수	0.3ha미만	03.-05	0.5-1.0	1.0-1.5	1.5-2.0	2.0-2.5	2.5-3.0	3.0ha 이상
1995	1,308	320	248	349	182	90	55	18	45
2000	1,184	329	188	297	162	95	49	1	50
2005	1,059	393	122	222	141	64		56	61
2010	954	423	87	161	107	58		52	66
2015	803	365	67	122	81	43		53	72

○ 치유의 숲 사업(산림테라피 사업)의 배경

- 지자체(행정) 주도형 산림테라피. 2000년 이후 겨울철 스키장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관광사업이 쇠퇴하자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해 민간(특히 팬션 등 숙박업소)이 자발적으로 모임을 갖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행정이 이를 지원하며 주도함.
- 2006년 산림테라피로 인정, 연간 약 1200명이 산림테라피 프로그램을 이용함.
- '치유의 숲 사업'은 농산촌의 과제를 해결하고 시사노마치가 자립한다는 주민의 생각에 행정이 찬동하고 도입한 프로그램임. 당초 행정이 사업을

담당할 인재 육성, 제도·조직 만들기, 유보도로를 설치하고, 2016년에 해당 사업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여 민간이 지속가능한 사업운영체를 구축하게 됨.

○ 치유의 숲 사업 중 산림테라피 프로그램의 특징

- 행정 수장이 인증한 ‘산림메디컬 트레이너’와 ‘치유의숲 숙박’임.
- 마을의 독자적인 인정 자격 ‘산림 메디컬 트레이너’를 가진 가이드가 산림을 안내함. 인증 가이드는 약 140명, 인증 자격은 지역민이거나 지역에 직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함. 가이드의 역할은 고객의 고민이나 상담을 경청하고 가벼운 트레킹으로 자연과 어울리며 자연의 지식과 이해를 넓히는 데 기여함.
- 산림테라피 프로그램은 이용자 자신의 오감을 깨우는 ‘다양한 알아차림’을 체험하는 내용으로 구성,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목적이나 이용기간에 맞춰 프로그램을 진행함. 산림테라피 프로그램에는 산림테라피 체험만이 아니라 좌선체험, 아로마 테라피 등 다른 활동도 포함됨.
- 이용 요금은 다른 산림테라피와 비교하여 높게 책정됨. 동경도 오쿠다마의 산림테라피의 5시간 요금은 5,500엔인데 비해 약 2배 이상 높음. 그 이유는 진단과 프로그램이라는 고객 맞춤형으로 진행되기 때문임.

<이용 요금>

이용 형태			요금	비고
숙박요금 (이용자 1인, 1박)	1유형		10,800	숙박일 오후부터 진단 후 프로그램 진행
	2유형		14,040	
	3유형		19,440	
트레이너 요금 (트레이너 1인당)	체험자 1인	반일	10,000	오전 또는 오후 약 3시간
		1일	15,000	약 7시간
	체험자 2~5인	반일	15,000	오전 또는 오후 약 3시간
		1일	25,000	약 7시간

- 산림테라피의 핵심 고객층은 1) 지역 주민(주민 건강 관리를 위해 산림테라피 활용), 2) 개인 고객(기획 여행 판매 도구로 산림테라피 활용), 3) 도시지역 기업 등 단체 고객(연수나 합숙 등에 산림테라피 활용) 중 시나노마치는 도시지역 기업으로 선정함.
- 도시 기업과 제휴를 시도한 배경은, 1) 기업의 56.7%가 정신 건강에 문제가 있는 정규직 사원이 있다, 2) 과거 1년간 정신건강으로 1개월 이상 휴직 또는 퇴직자가 있는 사업소가 25.8%이다(이상 2011년 후생노동성, 노

동정책연구연수기구 통계), 3) 취직 후 3년간 이직률 대졸 31%, 고졸 39.2%(2013년 후생노동성), 4) 기업, 건강보험조합의 직영 휴게소 등은 축소 경향이고 외부 휴양시설을 복리후생으로 이용하는 기업이 증가 등 (스트레스를 안고 일하는 사람들의 제2의 고향으로 만들면...)

- 따라서 치유의 숲은 기업의 직원 연수와 조합 여행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2016년 제휴 단체는 32개사로 산림테라피 총 매출의 약 80%를 차지함.
- 시나노마치 치유의 숲 특징 중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병원에서 간단한 무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제공임. 즉 시나노마치 숲에 가면 건강과 활력을 회복해 직장이나 사회에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의료기관 연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것. 이 서비스를 받은 방문객들이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제공함.

< 시나노마치 방문 면담 >



### 2.3. 동경도 오키다마쵸 일반재단법인 오키타마마치 지역진흥재단

- 방문 일자: 2018년 5월 30일(수)
- 전화번호: +81-428-83-8855
- 주소: 東京都西多摩郡奥多摩町氷川215-6 奥多摩町役場地下2階
- \* 홈페이지 <http://okutama-therap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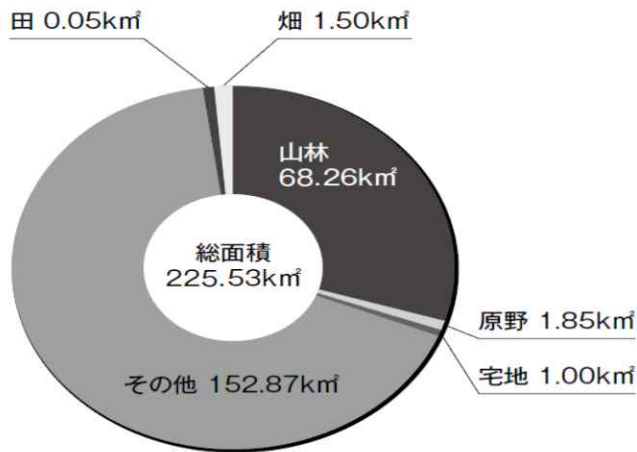
#### ○ 지역 개요

- 동경도 서북단에 위치하고 동경도의 약 10분의 1 면적으로 도쿄 중심부에서 전철로 약 2시간 거리에 위치함. 동경도에서 가장 높은 산(표고 2017m)와 다수의 계곡 협곡으로 동경의 수원지임. 많은 도시민들이 등산, 낚시, 캠핑 등을 위해 오키타마를 방문함.
- 지역의 94%가 산림이고 국립공원, 인구 총 5,241명으로 지속 감소 중이

며 65세 이상 인구 49%로 초고령화 지역.

- 2008년 4월 동경도에서는 처음으로 산림테라피 기지 인정 받음.
- 지역을 찾는 관광객 수는 1991년 237만명, 2006년 144만명으로 감소 후 산림테라피 등의 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후 2012년 176만명, 2017년 212만명으로 증가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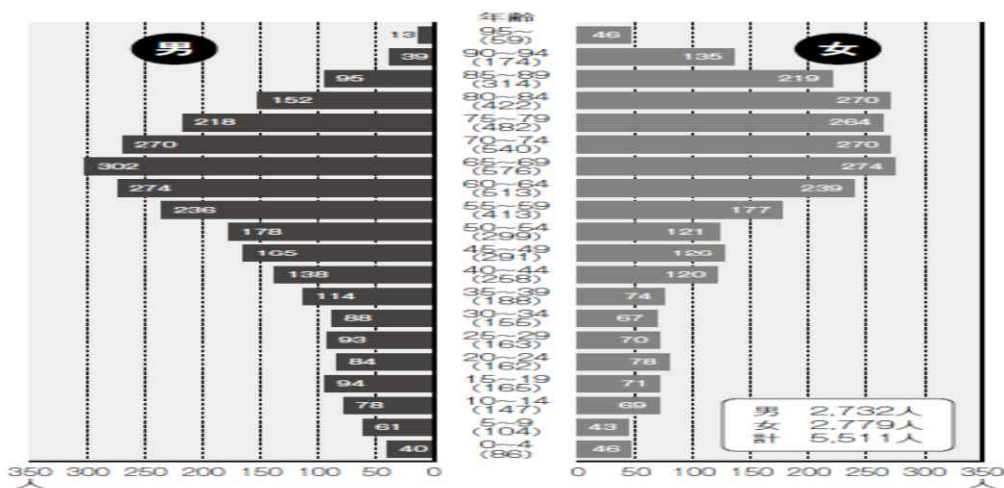
○ 지목별 면적



○ 인구 및 세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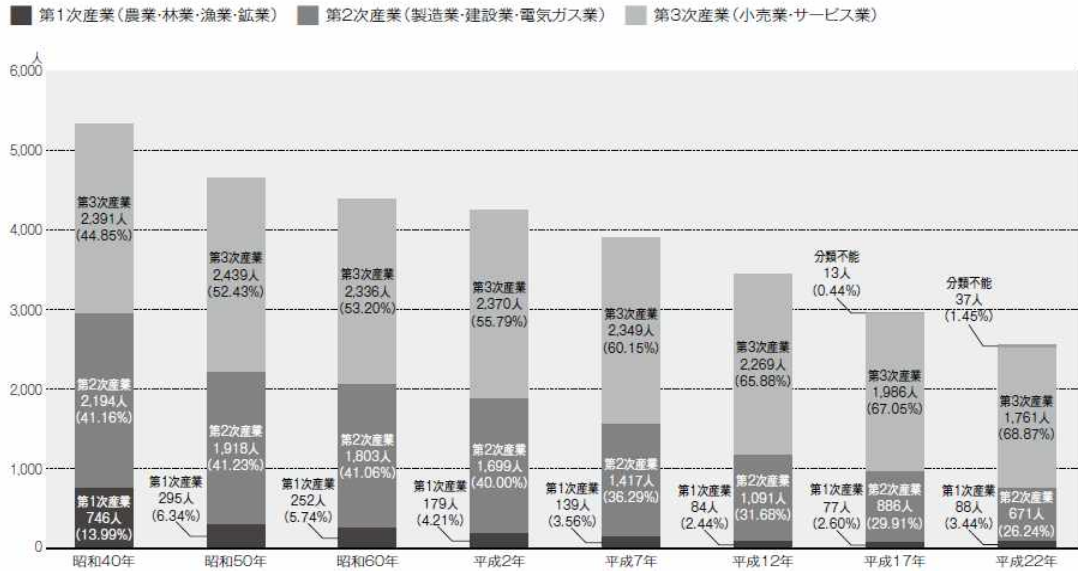
- 2015년 인구 5,511명(남 2,779명, 여 2,732명), 총 세대수 2,739명으로 줄곧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임.

□ 연령별 인구



○ 산업별 취업자수 추이

- 2010년 3차 산업 68.87%, 2차 26.24%, 1차 3.44%



○ 산림테라피 사업 추진 배경

- 2004년 오쿠타마마치 제4기 장기종합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관광객 감소에 따른 관광산업 쇠퇴와 젊은 세대의 유출에 대한 대책 마련이 검토됨. 당시 산림테라피의 존재가 알려짐.
- 자연과 입지조건을 활용하고, 마을주민과 도시민들에게 산림의 치유효과에 의한 스트레스 해소, 질병 예방 등 “마음과 신체의 건강유지 및 증진”과 지역진흥을 위해 2005년부터 산림테라피 사업을 추진함.

○ 오쿠타마초가 지향하는 산림테라피 사업의 목적

- 지역민의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 예방(건강하고 장수하는 지역)
- 도시주민의 건강 유지·증진과 질병예방
- 관광객 확보와 증진
- 관광객 행동 패턴 개혁(당일 드라이브형에서 숙박형으로 발전)
- 지역 진흥

○ 산림테라피 사업의 성격

- 지자체 주도 : 지역개발 관광사업의 일환으로 지자체가 출자한 재단법인(행정이 사무국장 파견)이 운영
- 산림테라피 사업은 초기부터 지자체 행정의 산림테라피추진계가 담당함.

- 2011년 4월부터 일반재단법인인 「오쿠타마지역진흥재단」이 행정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함.
- 「오쿠타마지역진흥재단」은 지자체가 100% 출자한 법인(여행업 자격 취득)으로 산림테라피 사업을 중심으로 환경보전, 관광사업 등을 함.
- 현재 지자체로부터 산림테라피사업(투어 개최)을 비롯하여 마을주민 건강 만들기 사업, 테라피 로드 순찰사업, 홍보사업 등을 위탁받아 운영함.
- 「오쿠타마지역진흥재단」은 이사 3명, 감사 2명, 평의원 5명, 그리고 실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무국 6명으로 조직됨. 사무국 6명 중 국장 1명만 행정에서 파견한 직원이고, 나머지는 모두 새로 채용함(지역민 8명, 외부인 4명). 이외 아르바이트 등으로 산림테라피 가이드, 산림 요가, 아로마 교실, 도예 교실 등의 담당자 50여명이 활동함.
- 테라피 코스는 5개로- 전국 최초로 테라피 전용코스로 설계

#### ○ 산림테라피 사업의 특징

- 첫째, 숙박업소 인정제도
  - 산림테라피에 참여하는 숙박업소의 차별화를 꾀하기 위해 식사, 입욕, 서비스 등의 일정 기준을 통과한 숙소를 정장(町長)이 산림테라피 숙소로 인정하는 「오쿠타마마치 산림테라피 치유숙소(奥多摩町森林セラピー癒宿)」 인정제도를 실시함.
  - 「오쿠타마마치 산림테라피 치유숙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마을이 개최하는 강습회를 수강한 종사자가 1명 이상이고, 또 시설 심사에 합격해야 함.
  - 강습회는 ①산림테라피와 숙박시설의 역할(2시간), ②접객 매너(2시간), ③구급교육(3시간), ④식재료의 효능(1시간)
  - 숙박업소는 지역산 계절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요리와 식재료의 효능을 식사 때 설명해야 함.<sup>3)</sup>
  - 인정기간은 3년이고, 현재 총 4곳(민박 1곳, 호텔 1곳, 여관 2곳)이 인정받아 운영 중임.
- 둘째, 안내인 양성, 인정제도
  - 삼림욕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숲 속을 안내하고, 자연·향토역사·의료 지식 등을 갖춘 가이드를 양성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오쿠타마마치 산림테라피 어시스턴트 강습 및 인정제도실시요강」에 기초하여 「산림테라피 어시스턴트」를 양성하는 제도를 운영함.

3) 「奥多摩町森林セラピー癒宿認定制度実施要綱」참조.

- 강습은 ①의학.생리학(3시간), ②산림과학(3시간), 필드학(6시간), 지원학(地元學: 오쿠타마마치 개요, 민속, 방언, 자연 등/ 7시간), 상급 구급교육(8시간)으로 이루어져 실시함.
- 강습에 참여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정장은 산림테라피 어시스턴트 양성강습회 수료증을 발급. 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정장이 산림테라피 어시스턴트 인정증을 교부함. 유효기간은 3년.4)
- 현재 인정자는 총 34명(제1기 12명, 제2기 6명, 제3기 16명)이다. 어시스턴트는 오쿠타마 지역민에 한정하지는 않는다.
- 셋째, 먹거리 제공
  - 산림테라피 투어 참가자에 대해 점심에 테라픽 도시락, 그리고 ‘숲의 티타임’에 허브티와 수제 쿠키를 제공한다. 테라픽 도시락은 지역의 음식점과 연계하여 생산, 공급 받는다.
- 넷째, 체험자 현황
  - 산림테라피 체험자는 2009년~2011년 1,100명~1,300명 수준에서 꾸준히 늘어나 2017년에는 1,849명에 이룸. 이 중 기업이나 단체의 사원 연수 등으로 참가(참가비 절반 보조)하는 체험자가 약 800명 정도

○ 산림테라피 사업의 향후 계획

- 산림테라피 참가자가 꾸준히 늘고, 그 중에는 재방문자도 있으므로 체험자들이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과 특색 있는 상품의 개발 필요
- 테라피 도시락의 메뉴를 다양하게 하며, 또 산림테라피 투어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려함.

< 오쿠타마쵸 지역진흥재단 방문 면담 >



4) 「奥多摩町森林セラピーアシスター講習及び認定制度実施要綱」참조.



### 3. 치유의 숲(산림테라피) 사례의 시사점

#### ○ 산림테라피 도입 배경

- 1990년대 후반 이후 버블경제 붕괴로 인한 관광객 감소 등 지역경제에 음(-) 영향
- 1) 지자체 행정의 지역경제 활성화(지역진흥) 대책, 2) 다양한 프로그램에 지역민의 적극 참여(관광업 종사자, 의료인, 각종 문화강좌, 농업인 등)로 산림테라피 기지를 인증받음

#### ○ 산림테라피 사업 추진 주체

- 사업 초기, 산림테라피 관련 시설(하드웨어)을 갖추고 다양한 분야의 민간 참여(소프트웨어)를 넓히기 위해 지자체(행정)이 주도함.
- 사업 시행 후 제3섹터(지역진흥공사)를 설치하여 행정에서 공무원을 파견 하거나 민간에 위탁함.

#### ○ 산림테라피 사업의 특징

- 지역 독자적인 상품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 : 지역 먹거리 제공, 숙박업소 나 가이드 자격 강화 위해 자체 개발한 강습내용과 규정을 조례로 제정
- 지속적인 고객확보를 위해 기업이나 단체의 직원 연수와 제휴함.
- 고객의 60~80%가 중장년 여성임을 고려하여 산림테라피 이외의 힐링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구비하여 당일여행보다 체류형 여행으로 유도함.